

중국 조선족의 저출산력*

한족과의 비교

김두섭**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머리말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다. 중국의 민족구성을 보면, 1990년 현재 전체인구의 약 92.0%를 점유하고 있는 漢族 이외에도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지난 1990년 인

* 이 연구는 1995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18개 소수민족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족인구는 192.1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규모로 13번째 소수민족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건국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내의 조선족은 중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여 왔으며,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없는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내의 조선족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변 조선족자치주 통계국의 199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자치주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합계출산율(TFR)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소추정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1990년 중국 전체인구의 합계출산율은 2.3 이었다(Gu and Li, 1994).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한국과 중국간 접촉과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인구변천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 인구가 지난 40여 년 간 중국에서 어떻게 성장하였고, 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의 그것과 대비하여 설명하는데 맞춘다. 또한 조선족의 낮은 출산력과 관련하여 성비와 남아선호관,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족의 사망력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지난 199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중국내 조선족은 주로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을 포함하는 동북지방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는 118.2만명으로 중국내 전체 조선족인구의 61.5%를 점한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 테이프가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조선족인구의 성장과 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953년, 1964년 및 1982년에 실시되었던 중국 인구센서스의 결과와 각종 공식 및 비공식자료들도 활용될 것이다.

2. 조선족 이주의 역사와 규모

조선족의 간도지방으로 이주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淸나라는 1677년 백두산 일대 압록강과 두만강의 이북지역을 청나라의 발상지라는 명목으로 封禁地域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의 월경과 개간은 엄한 규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남안의 조선족들은 빈번하게 강을 넘어 잠입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 이동은 주로 ‘朝耕暮歸’로 당일치기에 되돌아오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체류기간이 길어져 ‘春求秋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나라의 중·후기에 이르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토지와 식량에 대한 인구압력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은 內地로부터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四川, 東北지방으로 인구가동이 대량 발생하였다. 漢族의 이러한 이동은 18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동북지방의 인구는 18세기 말에 이미 백만명을 넘었다고 한다(尹豪, 1993). 인구의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청나라 정부는 결국 1885년에 백두산 일대를 해금하였고, 이는 조선족이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늘날 연변지역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간도지방에 조선족의 거주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후기인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족의 집단이동은 당시 육진(함경도)지방의 연이은 흉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1860년부터 1870년 사이에 조선반도 북부에 극심한 수재, 한재, 총재가 발생하자 헐벗은 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청나라 영토인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간도지방의 조선족인구는 1860년대에 이미 7.7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崔昌來 外, 1989; 1992). 그 후 조선족의 거주지는 점차 중국 동북지방(만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인구변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높은 출산력과 사망력으로 특징지워지는 전통적 성장기에 해당된다. 조출생률(CBR; 1,000명당)은 35-42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으며, 조사망률(CDR; 1,000명당)도 30-35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말기까지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정체되고 전형적인 농업사회였으며, 인구증가의 속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반도의 인구는 1910년의 한일합방을 전환점으로 하여 변천을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료술이 한일합방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920년 경부터는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910~1915년의 기간 동안 34 정도이던 조사망률이 일제 말기인 1940~1945년에는 23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출산력은 보건개혁과 서양의학의 확산으로 오히려 약간 상승하여, 1910~1945년의 기간 동안 조출생률이 38에서 42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김두섭, 1993; Kim, 1992; 1994).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인구증가의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전통적 성장기에 2~3% 정도에 불과하던 인구의 자연증가는 그 속도가 계속 빨라져서 1930년 이후에는 연 20%를 상회하게 된다. <표1>에 제시된 것처럼, 일제 말기인 1944년에 이루어진 센서스 결과는 전국인구를 2,512만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1910년에 비해 44.1%가 증가한 수준이다.

그런데 사망률 저하에 따른 인구의 빠른 자연증가는 한반도에서도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가중시켰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라 농촌의 경제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대규모의 이농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농촌을 떠난 농민들의 이동 목적지는 주로 만주와 일본이었다. 초기에는 함경도 지방의 농민들이 새로운 농토를 찾아 만주로 이동하였고, 1920년 이후에는 일본으로 노동이민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 이후에 만주로 이동은 남쪽의 이농민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권태환과 김두섭, 1990).

또한, 1932년의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의 이른바 대륙정책에 따라 만주로 집단이주도 많이 이루어졌다. 집단이주인구의 규모는 1937~1940년의 기간에 6만명에 육박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尹豪, 1993). 한편,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해외이동은 주로 징병과 징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한반도 인구의 해외이동은 1935~1940년 사이에 가장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기간중의 연평균 순국제이동률(1,000명당)은 -8.9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1>에 제시된 국제이동률을 사용하여 추정된 순국외이동자의 규모는 1910~1944년의 기간 동안 모두 251.2만명에 이른다(김두섭, 1996).

금세기 초에 조선족 거주지역이 널리 형성되었던 만주는 현재의 동북 3성, 즉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을 포함하는 지역과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 <표2>는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인구의 성장추세를 보여준다. 조선족인구는 1910년 약 22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44년에는 7.5배가 넘는 165.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년의 기간동안 매년 59.4%의 놀라운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표2>에 제시된 것처럼, 1915-1920년과 1935-1940년 기간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97.6%와 112.5%에 이른다.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인구의 급증은 결국 자연증가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이 지역 조선족인구의 자연증가율이 <표1>에 제시된 한반도인구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가정한다면, 1910~1944년 기간동안 인구증가분의 71.3%에 해당하는 102.6만명이 인구이동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에서, 34년의 기간 동안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는 41.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1〉 한반도의 인구성장(1910-1944)

연도	인구 (1,000명)	연평균증가율(%)		
		자연증가	국제이동	총증가
1910	17,427*	4.0	-1.4	2.6
1915	17,656*	7.0	-2.3	4.7
1920	18,072*	12.0	-1.8	10.2
1925	19,020	18.7	-4.3	14.4
1930	20,438	20.2	-3.6	16.6
1935	22,208	20.6	8.9	11.7
1940	23,547	20.2	-2.2	18.0
1944	25,120			

주: * 추정인구.

자료: Kim(1992; 1994).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인구의 증가는 특히 1910년대와 1930년대 후반에 두드러진다. 한일합방 직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이주가 많았을 것이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졌던 1910년과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이주인구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승제, 1973: 90). 이에 비해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이동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 때문에 호구지책이 어려워진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지역 농민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주 후 이들은 농업 이외에도 상업에 종사하거나, 철도부설이나 광산의 노동자, 단순노동자 등으로 그 성격이 다양해졌다.

〈표2〉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인구의 성장추세, 연평균증가율 및 인구증가요인
(1910-1944)

연도	인구	연평균증가율(%)			인구증가 규모		
		총증가	자연증가	국제이동	총증가	자연증가	국제이동
1910	220,000*						
		49.7	4.0	45.7	62,070	4,996	57,074
1915	282,070						
		97.6	7.0	90.6	177,357	12,720	164,637
1920	459,427						
		29.3	12.0	17.3	72,546	29,712	42,834
1925	531,973						
		26.4	18.7	7.7	75,146	53,228	21,918
1930	607,119						
		61.7	20.2	41.5	219,451	71,846	147,605
1935	826,570						
		112.5	20.6	91.9	623,814	114,227	509,587
1940	1,450,384						
		33.5	20.2	13.3	208,188	125,534	82,654
1944	1,658,572						
1910-44					1,438,572	412,263	1,026,309

주: 1) 이 표에 제시된 중국 동북지방(만주)의 조선족인구는 金哲(1965), 한상복과 권태환(1993)의 자료이고, 나머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추정하였음.

2) * 일본통계로부터의 추정값.

자료: 金哲(1965: 28); 한상복과 권태환(1993: 27); <표1>.

3. 조선족인구의 성장과 특성

1) 인구증가 추세와 분포

중국에서는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졌다. 네 번에 걸친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중국인구, 한족 및 조선족의 인구추세와 이를 기초로 계산된 연평균증가율이 <표3>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인구는 1953년의 첫번째 인구센서스에서 5.8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37년 동안 중국의 총인구는 2배로 증가하여 1990년 현재 11.3억명을 넘어서고 있다. 조선족인구는 같은 기간동안 111.1만명에서 192.1만명으로 72.9%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에 0.19%이었던 총인구에 대한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1990년에 0.17%로 떨어졌다.

<표3>에서 조선족인구는 1953-1964년 기간에 연평균 17.6%의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 총인구나 한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1953-1958년의 베이비붐 기간에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연 30%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尹豪, 1993).

중국에서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경제발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면 '한 자녀정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자녀를 둘씩, 경우에 따라서는 셋까지 낳을 수 있는 우대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이 한족의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에는 이같은 소수민족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표3>에서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1964-1982년과 1982-1990년의 기간동안 각각 14.9%와 10.6%로 중국 전체인구와 한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3〉 중국의 한족 및 조선족인구의 성장추세와 연평균증가율(1953-1990)

연도	인구(1,000명)			연평균증가율(%)		
	총인구	한족	조선족	총인구	한족	조선족
1953	577,856	542,824	1,111			
				16.3	16.6	17.6
1964	691,220	651,296	1,349			
				20.7	20.2	14.9
1982	1,003,914	936,675	1,765			
				15.2	13.4	10.6
1990	1,133,683	1,042,482	1,921			

자료: 尹豪(1993: 23).

〈표4〉 중국 조선족인구의 지역별 분포(1953-1990)

지역	1953	1964	1982	1990
전국	1,111,274	1,348,594	1,765,204	1,920,597
北京	384	2,909	3,905	7,689
天津	108		816	1,788
吉林	756,026	866,627	1,104,071	1,181,964
黑龍江	231,510	307,562	431,644	452,398
遼寧	115,719	146,513	198,252	230,378
內蒙古	6,705	11,280	17,580	22,641
河北	68	1,376	1,737	6,250
山東	122	512	939	2,830
湖北	17	112	652	1,874
河南	-	246	545	1,099
山西	24	310	525	1,085
陝西	79	338	643	1,056
新疆		344	320	1,037
기타	512,000	10,465	3,575	8,508

자료: 尹豪(1993: 23).

〈표4〉는 네 번의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조선족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 나타난 도시와 읍들은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서 조선족인구가 1천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들이다. 중국내의 조선족인구는 그 절대다수가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을 포함하는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표4〉를 보면, 1953년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는 중국내 조선족인구의 99.3%에 해당된다. 조선족의 이러한 거주지 분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99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는 186.5만명으로, 아직도 전체 조선족인구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길림성에 거주하는 118.2만명의 조선족인구만으로도 그 구성비율은 61.5%가 된다.

조선족인구는 중국정부가 1979년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며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최근 한국과 경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이동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4〉는 北京, 天津, 內蒙古, 河北, 山東, 湖北지방의 조선족인구가 198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몽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현재 이들 지역의 절대인구규모가 8천명 선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5〉는 〈표4〉에 근거하여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5〉에 따르면, 세번째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진 1982년 이전에는 길림성 조선족인구의 증가속도가 흑룡강성과 요령성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 기간

〈표5〉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인구의 성장추세(1953-1990)

연도	인구				연평균증가율(%)		
	吉林	(延邊)	黑龍江	遼寧	吉林(延邊)	黑龍江	遼寧
1953	756,026	(557,279)	231,510	115,719	12.4(10.2)	25.8	21.4
1964	866,627	(623,136)	307,562	146,513	13.5(10.6)	18.8	16.8
1982	1,104,071	(754,706)	431,644	198,252	8.5(10.6)	5.9	18.8
1990	1,181,964	(821,479)	452,398	230,378			

자료: 〈표4〉; 崔昌來와 宋成華(1990).

의 연평균증가율이 12.4%와 13.5%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길림성의 조선족인구가 중국내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갔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동성향은 같은 기간에 10.2%와 10.6%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인 길림성내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서 특히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상복·권태환, 1993: 52).

또한 <표5>는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이 1982년 이후 각각 8.5%와 5.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선족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출산력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1980년대 초 이래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경제개방이 이루어지고 한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조선족인구가 한국이나 중국내 北京, 天津, 內蒙古, 河北, 山東, 湖北 등의 지방으로 대거 이동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연변자치주와 공업기반이 비교적 튼튼한 요령성의 경우에는, 1982-1990년의 기간에도 연평균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0.6%와 18.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조선족은 동북 3성, 그 중에서도 특히 길림성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길림성과 길림성내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의 규모가 중국내 조선족인구의 61.5%와 4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내 조선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출산력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인구센서스의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와 연변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를 활용할 것이다. 길림성의 10% 표본자료에는 243.2만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5.2%에 해당되는 12.5만명이 조선족이다. 연변자치주의 50% 표본자료는 조선족 41.9만명을 포함하여 102.4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본자료들과 아울러 1990년 인구센서스의 공식집계자료도 활용된다.

우선 조선족이 가장 밀집하여 살고 있는 연변자치주의 인구조표를 살펴 보기로 하자. 연변의 조선족자치주는 1990년 현재 5개의 市와 3개의 縣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인구 208.0만명 중 39.5%에 해당하는 82.1만명이 조선족이다. <표6>을 보면, 조선족의 거주지는 연변자치주내에서도 한반도와 국경에 접해 있는 延吉市, 圖們市, 龍井市, 琿春市와 和龍縣에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총인구에 대한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5할이 넘는다. 반면, 汪清縣과 安圖縣의 조선족 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敦化市의 경우에는 그 구성비율이 5.2%에 불과하다.

<표6>에서 연변자치주 총인구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각각 16.4‰와 6.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격차로 결정되는 자연증가율은 10.0‰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 현재 중국 전체인구의 조출생률, 조사망률과 자연증가율이 각각 21.1‰, 6.7‰ 및 14.4‰였음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國家統計局, 1991a, 1991b). 참고로, 1990년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추정된 한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과 자연증가율은 각각 15.6‰, 5.8‰ 및 9.8‰ 이었다(Kim, 1992; 김두섭, 1993).

<표6>에 특이한 것은,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일수록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이 뚜렷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연길시, 도문시, 용정시와 화룡현의 자연증가율은 모두 9‰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단지, 훈춘시의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만이 예외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조사망률은 뚜렷한 규

<표6>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인구지표(1990)

지역	인구		조출생률 (‰)	조사망률 (‰)	자연증 가율(‰)	총인구 의 성비
	총인구	조선족 (%)				
총인구	2,079,902	821,479 (39.5)	16.4	6.4	10.0	103.2
延吉市	293,069	177,547 (60.6)	14.7	5.8	8.9	99.5
圖們市	122,579	69,166 (56.4)	14.5	6.5	8.0	100.3
敦化市	477,127	24,745 (5.2)	17.8	6.1	11.7	106.2
龍井市	279,611	183,994 (65.8)	14.9	7.7	7.2	100.9
琿春市	183,755	92,100 (50.1)	17.0	6.5	10.6	100.5
和龍縣	238,730	136,894 (57.3)	15.3	6.8	8.5	102.3
汪清縣	268,642	85,049 (31.7)	16.3	5.9	10.5	103.6
安圖縣	216,389	51,984 (24.0)	19.7	6.5	13.2	105.2

자료: 尹豪(1993: 28); 崔昌來와 宋成華(1990).

칙적인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표6>을 보면, 총인구의 성비 역시 조선족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족 유배우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7>에 제시된 연령구조를 보면, 조선족은 20대 유배우인구의 구성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모두에서 특히 남자의 경우에 그러하다. 반면, 3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족의 출산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자연재해와 大躍進運動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1958-1961년 기간 동안 출산력이 낮아졌다. 그러나 1962년부터는 출산력이 다시 상승하여 1972년까지 11년간 평균 34‰ 수준의 높은 조출생률이 지속되었다(尹豪, 1993).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은 1962년에 합계출산율(TFR)이 6.4 이상의 높은 출산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출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여 1967년에는 3.6, 그리고 1972년에는 2.9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n et al., 1988: 45). 이는 아마도 1962년에 채택된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조선족의 적극적인 호응과 아울러 문화혁명기(1966-1976년)에 조선족의 불안한 입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0세 미만 조선족 남자인구의 구성비율이 여자보다 현저히 더 낮은 것은 남녀간 이동의 선택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내 조선족의 교육수준이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표7>은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은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은 문맹 및 반문맹 여자인구가 뚜렷하게 적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가구의 특성을 보면, 연변자치주는 길림성보다 비농가와 도시에 호구를 둔 인구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7>에서 길림성의 조선족은 농가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비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은 농가보다는 비농가의 구성비율이 높으나, 다른 민족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호구의 등록지를 보면, 길림성에서 도시에 호구를 둔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남녀가 각각 18.7%와 18.2%로 다른 민족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자치주에서도 관찰되나 그 편차의 폭은 매우 작다.

〈표7〉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유배우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구성비율(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전체		조선족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0.0	0.3	0.5	1.0	0.0	0.3	0.1	0.5
20-29세	18.3	27.0	27.2	31.4	17.8	26.8	23.1	30.1
30-39세	35.9	34.4	31.9	31.7	36.0	34.1	34.0	32.6
40-49세	20.3	18.8	17.6	17.6	20.1	18.7	18.7	18.2
50세 이상	25.5	19.5	22.7	18.2	26.0	20.1	24.2	18.6
교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맹 및 반문맹	3.0	6.4	8.8	19.1	2.5	5.5	6.7	13.8
초등학교	14.2	20.1	31.8	36.0	11.9	16.0	19.0	21.0
중등학교	41.5	41.1	35.8	27.2	40.4	41.8	37.9	35.2
고등학교	32.6	29.6	19.6	15.9	35.5	33.7	29.9	27.7
대학교	8.8	2.9	4.0	1.8	9.7	3.1	6.6	2.4
가구의 특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가	51.3	53.9	58.6	61.0	43.5	46.3	42.9	44.7
비농가	48.7	46.1	41.4	39.0	56.5	53.7	57.1	55.3
호구 등록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촌	81.3	81.8	79.8	80.1	78.6	79.1	78.4	78.7
도시	18.7	18.2	20.2	19.9	21.4	20.9	21.6	21.3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4. 조선족인구의 저출산력

1) 총출생아수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저출산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총출생아수별 구성비율을 민족별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8>에서는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이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낮다는 사실이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모두에서 마찬가지이다. <표8>에서 출생자녀가 1명인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낮다. 반면, 출생아수가 2명이나 3명인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단지, 총출생아수가 4명 이상인 조선족의 구성비율이 한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낮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다른 민족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9>를 보면, 조선족의 평균 출생아수는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에서 각각 2.13과 2.05로 한족보다 적다. 조선족의 출산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농가·비농가 여부와 호구등록지에 관계없이 일

〈표8〉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구의 총출생아수별 구성비율(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한족	전체	조선족	한족	전체
총출생아수						
0명	8.6	9.4	9.4	9.0	8.7	8.8
1명	29.9	32.6	32.5	32.5	36.2	34.5
2명	32.5	23.1	23.9	31.9	20.9	25.9
3명	13.1	13.0	12.9	12.1	12.0	12.0
4명 이상	15.8	21.8	21.3	14.4	22.2	1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관적으로 나타난다. <표9>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이다. 예상과는 달리, 문맹 및 반문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교육수준에서 조선족의 출산력이 오히려 한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연변자치주의 조선족보다 총출생아수가 많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는 <표9>에 제시된 특성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중분류분석(MCA)이 시행되었다. 분산분석은 유의도 검증에 필요한 통계값들을 제공해 주며, 중분류분석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달라지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의 결과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0>은 길림성에 거주하는 유배우 부인의 경우, 개인적인 수준과 가구수준의 특성요인, 그리고 민족이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결과는 분석에 포함된 5개의 독립변수로 총출생아수의 분산(variance)의 43%가 설명 또는 예측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분석에서 총출생아수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교육, 가구의 특성, 호구 등록지, 민족의 순서로 영향력의 크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0.01 유의도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연령, 교육, 가구의 특성, 호구 등록지의 경우에는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정한 이후에도 총출생아수의 편차의 폭에 변화가 있을 뿐이며 특별히 새로운 편차의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민족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총출생아수에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표10>을 보면, 조선족의 유배우 부인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출산력 수준이 뚜렷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족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후에 관계의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조선족 이외의 소수민족은 한족보다 총출생아수가 작은 것처럼 보이나,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이후에는 출산력의 수준이 한족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9〉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유배우 부인의 총출생아수(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한족	전체	조선족	한족	전체
총인구	2.13	2.31	2.33	2.05	2.31	2.20
민족						
한족			2.34	-	-	2.31
조선족			2.13	-	-	2.05
기타 소수민족	-	-	2.20	-	-	2.18
연령						
20세 미만	0.38	0.47	0.47	0.31	0.56	0.50
20~29세	0.97	1.12	1.12	0.92	1.04	1.00
30~39세	1.79	1.93	1.93	1.71	1.83	1.78
40~49세	2.81	3.41	3.37	2.63	3.45	3.10
50세 이상	3.72	4.21	4.19	3.61	4.37	4.03
교육						
문맹 및 반문맹	3.32	3.71	3.71	3.06	3.88	3.75
초등학교	3.21	2.56	2.57	3.35	2.93	3.06
중등학교	1.96	1.67	1.69	1.97	1.65	1.81
고등학교	1.46	1.29	1.32	1.42	1.23	1.33
대학교	1.42	1.26	1.28	1.41	1.23	1.33
가구의 특성						
농가	2.30	2.55	2.53	2.20	2.60	2.42
비농가	1.94	2.02	2.01	1.92	2.10	2.02
호구 등록지						
농촌	2.21	2.47	2.45	2.13	2.41	2.29
도시	1.76	1.84	1.84	1.74	1.96	1.87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표10〉 길림성 유배우 부인의 총출생아수에 대한 중분류분석(1990)

총평균=2.33		미조정		독립변수의 효과 조정 후	
독립변수와 범주	사례수	편차	Eta	편차	Beta
민족			0.03		0.02**
한족	575,684	0.02		0.01	
조선족	33,259	0.19		-0.15	
기타 소수민족	29,726	-0.13		0.06	
연령			0.62		0.59**
20세 미만	6,516	-1.86		-2.05	
20-29세	200,103	1.21		-1.17	
30-39세	202,479	-0.40		0.36	
40-49세	112,891	1.05		1.02	
50세 이상	116,680	1.87		1.75	
교육			0.44		0.10**
문맹 및 반문맹	121,870	1.39		0.22	
초등학교	230,012	0.24		0.15	
중등학교	173,402	-0.63		-0.17	
고등학교	101,690	1.01		-0.26	
대학교	11,695	-1.05		-0.45	
가구의 특성			0.13		0.09**
농가	389,508	0.20		0.13	
비농가	249,161	-0.32		-0.21	
호구 등록지			0.13		0.08**
농촌	511,247	0.12		0.07	
도시	127,422	-0.49		-0.30	
중다결정계수 R^2					0.43

주: ** $p < 0.01$.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표11〉 연변 조선족자치주 유배우 부인의 총출생아수에 대한 중분류분석(1990)

총평균=2.20		미조정		독립변수의 효과 조정 후	
독립변수와 범주	사례수	편차	Eta	편차	Beta
민족			0.07		0.07**
한족	148,008	0.11		0.11	
조선족	112,827	0.15		-0.15	
기타 소수민족	8,395	-0.01		0.18	
연령			0.65		0.58**
20세 미만	1,458	-1.68		-1.91	
20-29세	80,948	1.20		-1.10	
30-39세	87,665	0.42		-0.34	
40-49세	40,982	0.90		0.83	
50세 이상	50,177	1.83		1.62	
교육			0.50		0.14**
문맹 및 반문맹	37,120	1.55		0.33	
초등학교	56,449	0.86		0.32	
중등학교	94,679	0.38		0.11	
고등학교	74,583	-0.86		-0.23	
대학교	6,399	0.87		-0.39	
가구의 특성			0.11		0.07**
농가	120,417	0.22		0.15	
비농가	148,813	-0.18		-0.12	
호구 등록지			0.10		0.05**
농촌	211,978	0.09		0.04	
도시	57,252	-0.33		-0.15	
중다결정계수 R^2					0.46

주: ** $p < 0.01$.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이 연구에서는 <표10>에서 관찰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재확인하고자, 동일한 분석틀을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유배우 부인의 총출생아수에 적용하여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표11>에 제시되어 있다.

<표11>에 제시된 변수들간의 관계는 길림성의 출산력 분석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단지, 연변자치주에서는 민족과 교육의 두 독립변수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구의 특성이나 호구 등록지의 영향력은 길림성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표11>에 제시된 Beta 값을 보면, 민족이 총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0.07로서 호구 등록지의 0.05보다도 오히려 크다.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조선족과 다른 민족의 총출생아수의 편차가 확대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아울러, 연변자치주의 총출생아수 평균값이 2.20명으로 길림성의 2.33명보다 작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중국내의 조선족이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뚜렷이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이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성비와 남아선호

중국과 한국에서는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남녀간의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관이 출생시의 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생시의 성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02~107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United Nations, 1973; Weeks, 1989). 그러나 중국에서는 1989년 현재 출생시의 성비가 113.9였고, 한국에서는 1990년에 116.8을 기록하였다(Kim, 1995).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성을 미리 감별하여 성 선별 출산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여아의 출생등록률이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Gu and Li, 1994).

출생시의 성비는 한 나라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기 마련이다. 지난

1990년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추정된 출생시의 성비를 省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보면, 103.4에서 117.0에 이르는 편차를 보인다. 그리고 30개 省중 21개 省에서 출생시의 성비가 108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u and Li, 1994). 출생시의 성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 지역은 上海와 北京처럼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출산력이 낮은 대도시 지역과, 반대로 貴州, 西藏(티베트), 新疆, 青海, 云南과 같이 발전 수준이 낮고 출산력이 높은 지역들이다.

〈표12〉에는 1990년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동북 3성의 출생시 성비가 거주지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출생시 성비는 각각 107.8과 107.3으로 나타나, 중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요령성은 출생시의 성비가 11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시의 성비를 거주지별로 보면, 도시에서 가장 낮고, 소도시 지역인 鎮과 농촌의 순서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13〉은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의 총인구 및 5세 미만 인구의 성비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출생시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다.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영아 및 유아사망률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기 때문에 연령의 상승과 함께 성비는 점차 낮아지게 되고, 총인구의 성별구성은 대체로 균형상태를 이룬다. 〈표13〉을 보면, 과거 5년간 출생시의 성비를 반영하는 5세 미만 인구의 성비는 대체로 총인구의 성비보다 높다. 단지,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한족의 경우에는 총인구의 성비가 106.2로 5세 미만 인구의 성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족의 연변자치주로의 이동이 남성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13〉에서 5세 미만 인구의 성비를 연령별로 보면, 길림성의 1세 인구를 제외하고는 성비의 수준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 즉,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에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부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조선족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한족의 5세 미만 인구의 성비는 조선족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은 남아선호관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관이나 남녀의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을 때까지 출산행위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출산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력의 수준이 극히 낮아진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남아선호

〈표12〉 동북 3성의 거주지별 출생시 성비(1989)

	거주지			전체
	市	鎮	농촌	
전국	108.9	111.9	111.7	111.3
길림성	106.0	107.3	108.5	107.8
흑룡강성	105.5	106.4	108.6	107.3
요령성	107.5	107.0	113.2	110.5

자료: Gu and Li(1994).

〈표13〉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구의 성비(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한족	전체	조선족	한족	전체
총인구	98.0	105.3	105.0	98.3	106.2	102.9
5세 미만 인구						
0세	102.4	106.8	106.2	103.7	106.6	104.9
1세	109.1	108.7	109.0	102.5	105.3	104.2
2세	105.0	107.4	107.0	104.6	106.5	105.3
3세	107.6	108.0	107.4	103.0	104.9	104.4
4세	104.1	106.6	106.3	104.2	101.3	103.2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관이 오히려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가족가치나 규범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조건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수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출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강한 남아선호관은 성 선별 출산행위를 통하여 출산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출생시의 성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태현, 1993; Kim, 1995).

저출산력과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이같은 설명들은 중국의 출산력 변천과정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nderson and Silver, 1995).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의 경우에 출생시의 성비

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보이는 조선족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3) 사망아수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의 수준은 역의 관계를 보인다. 특히, 영아 및 유아사망률의 저하는 과거 서구유럽국가들의 인구변천과정에서 출산력변천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내의 조선족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출산력은 현저하게 낮고, 사망력의 수준은 오히려 높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4〉는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인구의 사망자녀수별 구성비율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배우인구의 7.9%가 1명 이상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6%가 된다. 이에 비해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한족의 자녀사망 경험비율은 각각 6.4%와 6.1%로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표14〉에서 조선족은 한족과 전체인구에 비해 자녀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15〉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은 평균사망자녀수가 모두 0.11명인데 비해서 한족과 전체인구의 사망자녀수는 각각 0.09명과 0.10명이다. 〈표15〉를 보면, 총출생아수가 1명이나 2명일 때에는 민족에 따른 사망자녀수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출생아수가 3명이나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선족의 사망자녀수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녀사망력이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높은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특히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문맹·반문맹 및 초등교육이수자, 농가, 농촌 호구등록자 등의 집단에서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연령층의 조선족에서는 자녀사망력이 한족이나 다른 민족에 비해 뚜렷한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구의 사망자녀수 별 구성비율(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한족	전체	조선족	한족	전체
사망자녀수						
0명	92.2	93.7	93.6	92.4	93.8	93.3
1명	5.6	4.5	4.5	5.3	4.4	4.8
2명	1.5	1.2	1.2	1.4	1.1	1.2
3명 이상	0.8	0.7	0.7	0.9	0.6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표15〉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구의 평균 사망자녀수(1990)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한족	전체	조선족	한족	전체
총 인구	0.11	0.09	0.10	0.11	0.09	0.10
총출생아수						
1명	0.01	0.01	0.01	0.01	0.01	0.01
2명	0.03	0.03	0.03	0.03	0.03	0.03
3명	0.14	0.08	0.08	0.14	0.07	0.10
4명 이상	0.53	0.35	0.36	0.59	0.33	0.42

자료: 1990 인구센서스 길림성 10% 표본자료 테이프; 1990 인구센서스 연변 조선족 자치주 50% 표본자료 테이프.

5. 맺는말

중국정부가 1949년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인구센서스가 네 번 실시되었으나, 조선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제표된 자료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

족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길림성과 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는 1990년 현재 각각 118.2만명과 82.1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내 조선족인구의 61.5%와 4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1990년에 실시된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의 10% 표본자료 테이프와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 테이프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각각 243,2만명과 102,4만명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중국내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초 이래 조선족의 출산력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낮은 자연증가율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은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고, 문맹 및 반문맹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에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비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길림성의 조선족보다 낮은 출산력을 지닌다. 연변자치주내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길시, 도문시, 용정시와 화룡현의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뚜렷이 낮다. 조선족의 출산력이 다른 민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모든 연령층에서 확인되며, 농가·비농가의 여부와 호구 등록지가 도시 또는 농촌인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문맹 및 반문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교육수준에서 조선족의 출산력이 한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내 각 민족간의 차별출산력을 좀더 정밀히 분석하고자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산분석 및 중분류분석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연변자치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강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성 선별 출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에서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족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사망자녀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의 수준은 역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중국내의 조선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출산력 수준이 가장 낮은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이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낮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조선족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국내에서 조선족의 위상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2년의 인구센서스에서 조선족은 인구규모로 볼 때 11번째의 소수민족이었다. 그러나 1990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조선족의 순위가 13번째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한국과 접촉 및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족의 이동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과급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승제(1973), 《한국이민사 연구》, 서울: 장문각.
- 권태환과 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섭(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5(4), 통일원, pp. 202-235.
- _____ (1996), “미 군정기 남한인구의 재구성”(미간행).
- 김태현(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尹豪(1993), “中國朝鮮族의 人口動向”, 《한국인구학회지》 16(1): 19-36.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國家統計局(編)(1991a), 《中國統計年監 1991》,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1991b), 《中國人口統計年監 1991》,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 吉林省 統計局, 《中國 1990 人口普查資料(標本資料 컴퓨터 테이프)》.
- 崔昌來·朱成華·金維民(1992), 《延邊人口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崔昌來·朱成華(編)(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崔昌來·陳通河·朱成華(1989), 《延邊人口與計劃生育簡論》, 隋喜林 外(編), 《發展中的延邊》,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金哲(1965), 《韓國의 人口と 經濟》, 東京: 岩波書店.
- Anderson, Barbara A. and Brian D. Silver(1995), “Fertility and Sex Ratios at Birth in China: The Effects of Parity and Sex Composition of Previous Children, Based on Ethnic Comparisons in Xinjiang”, *Population Studies* 49(2): 211-226.
- Gu, Bao-Chang and Yong-Ping Li(1994),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China”,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7(2), 116-135.
- Han Jing-Qing, Lee-Jay Cho, Minja Choe and Chi-Hsien(1988), “The Fertility of Korean Minority Women in China: 1950-1985”,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3(1).
- Kim, Doo-Sub(1992),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In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licy: Studies in Honor of Sidney Goldstein*, ed. Calvin Goldscheider,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_____ (1994),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1910-199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2): 131-155.

_____ (1995), "Recent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Asia Journal* 2(1): 69-85.

United Nations (197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ies of Population Trends, Vol. 1, *Population Studies* No. 50, New York: UN.

Weeks, John R. (198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3rd Ed., Belmont, Cal.: Wadsworth Inc.

abstract

Low Fertility of Koreans in China: A Comparison to Hans

Doo-Sup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fertility of Koreans in China in comparison to Hans. From the demographic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explanations for Korean immigration to northeast China since the mid 19th century. Of interest are the trend of population growth and geographic distribution of Koreans in China. Attention is also given to the comparison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s and Hans in China.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raw data files of the 1990 Population Census from Jilin Province and Yanbian Korean Prefectu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level of fertility of Koreans in China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ose of Hans and other ethnic minority. This appears to be particularly true for Koreans residing in the regions densely populated with Koreans. The results of ANOVA and MCA confirm that the ethnic factor do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fertility. The lowest fertility of Koreans is found to be consistent after adjusting the effects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 and the household. Despite the recent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it i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pattern of sex ratios for Koreans in Jilin Province and Yanbian Korean Prefecture has been fairly balanced and stable. Finally, Koreans are found to have higher level of child mortality than Hans and other ethnic minority.